

가톨릭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 *

정 종 휴 **

【차례】 -----

- I.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
(신명 32,39 참조)
- II.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교회란 어떠한 것인가?
 1. 교리
 2. 성경과 성전
- III. 안락사 교리
 1. ‘가톨릭교회교리서’의 설명
 2. 안락사’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의 교리 설명
- IV. 안락사를 지지하는 운동의 출발점
 1. 생각과 삶의 세속화
 2. 합리주의적, 인도주의적 과학주의
 3.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의 사회화
- V.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
 1. 안락사 교리의 발달 과정
 2. 인격주의 생명윤리
 3.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교리의 종합
- VI.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최신 성명
- 1. 생명 파괴는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의 부정
- 2. 인간 생명은 변함없는 보편적 가치
- 3. 조력 자살은 의료와 의료인의 모습 왜곡
- 4.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 5. 죽음은 공동체가 함께 겪는 사건
- 6. 인간의 생명 앞에 종립 없다
- VII. 맷음말에 갈음하여 - 가톨릭교회 주장의 호소력
 1. 가톨릭 신앙은 생명 보호의 최후 보루
 2. 가톨릭교회에 대한 무지와 오해
 3. 가톨릭교회 내부로부터의 불교
 4. 개신교 형제들과의 협력과 연대

I.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 (신명 32,39 참조)

(1) 2022년 6월 15일 어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에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성명¹⁾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의사 조력 존엄사’는 이른바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2) 가톨릭교회는 왜 안락사를 반대하는가? 그것은 가톨릭교회가 ‘유한한 생명’이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방법으로 세우신 조직이

* 이 글은 한국교회법학회 제30회 학술세미나 “생명윤리와 기독교(2022.11.24.)”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전남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전 주교황청대사

1)

<https://www.cbck.or.kr/Notice/20220540?search=%20%EC%9D%98%EC%82%AC%20%EC%A1% B0%EB%A0%A5%20%EC%A1%B4%EC%97%84%EC%82%AC%20%EB%B2%95%EC%95%88&tc=contents&gb=K1300#>

며, 안락사는 ‘생명’이라는 유품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는 ‘생명에 대한 분명한 긍정’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긍정’이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는 안락사가 “생명으로 위장한 죽음의 공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²⁾

(3) 이 글의 목적은 ‘안락사’에 관한 교리와 이를 풀이하는 교도권의 가르침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다. 생명윤리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오늘날 같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톨릭과 개신교³⁾ 신자들의 기도와 연대와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더 나은 상호 이해와 대화와 협력을 바라는 뜻에서 가톨릭교회 교리의 기본틀에 관한 간단히 소개부터 시작할까 한다.

II.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교회란 어떠한 것인가?

1. 교리

(1) 가톨릭 신앙

가톨릭교회가 선언하는 신앙은 ‘교리’로 나타난다. 그 핵심이 되는 물음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는가”이다. 그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톨릭교회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천주교를 믿고 봉행해야 한다.”⁴⁾

(2) 향주삼덕(向主三德)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세 가지 덕이 있다. 향주삼덕(theological virtues)이라 하며 믿음(信德), 희망(望德), 사랑(愛德)(1코린13,13 등)을 말한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믿고 싶어도 믿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 희망(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도 그렇고, 사랑(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희망은 인간 삶의 지향점이다.

(3) 교리의 구성요소

가톨릭 교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믿을 교리란 ‘사도신경’에 들어 있다. 지킬 계명은 십계명과 교회법규이다. “안락사(euthanasia)”에 관한 교리는 십계명중 “제5계 사람을 죽이지 말라.”에서 나온다. 자기 영혼을 구하려면 반드시 은총이 필요하다. 은총을 얻는 방법은 ‘기도와 성사’이다. 사제가 봉헌하는 미사는 개신교의 ‘예배 “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2) Stefan v. Kempis, Benedikt XVI. - Das Lexikon. Von Ablass bis Zölibat (2007, benno) 167ff.

3) 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는 박도식, 『천주교와 개신교』(가톨릭출판사, 2005); J. 욘파르트(정종휴 옮김), 『가톨릭과 개신교 - 같은 점 · 다른 점, 서로의 이해를 찾아서』, (바오로딸, 1990) 참조. 개신교 신자들이 쓴 가톨릭과 개신교 비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듯하다.

4) 1960년대 중반까지 쓰이던 전통적인 『천주교 요리문답』(제1문답과 제2문답), (가톨릭출판사, 1962).

다른 것으로 2천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 봉헌을 피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거룩한 제사(聖祭)’이다. 따라서 ‘최상의 기도’가 되며 천주교회의 7성사는 모두 이 미사 성제와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다.

2. 성경과 성전

(1) 교리의 그릇

하느님께서는 계시로써 ‘교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 교리는 성경(聖經)과 성전(聖傳)에 보존되어 있다. 구약(46권)과 신약(27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성령(聖靈)의 감도(感導)에 따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하느님의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도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한 21,25). 영구히 그르침이 없이 천주교안에 전래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성전’이라 한다.

(2) 교리의 불변성과 가변성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다. 변함은 없지만 발전은 있다. 어디까지나 불변 속의 가변인 것이다. 특히 현대 문화 문명의 도전에 대한 가르침은 교리에서 출발하지만 교리 그 자체와는 달리 표현방식에 융통성이 있고, 인지의 발달과 과학 기술의 변화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대체로 ‘파ogn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신앙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궁리한다. 그러다 보니 더러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도 듣는 등 오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날지언정 교리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수밖에 없다.

III. 안락사 교리

1. 『가톨릭교회교리서』 5)의 설명

(1) 안락사 금지는 제5계명에서

십계명 중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에서 “방법과 동기가 어떻든, 고의적인 안락사는 살인죄이다.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경에 크게 어긋난다” (2324)고 선언한다.

(2) 생명의 신성함

5) 『가톨릭교회교리서』(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https://www.cbck.or.kr/Documents/Catechism>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 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 해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2255). “생명력이 감소되고 쇠퇴되어 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중” 해야 한다.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2276)

(3) 안락사는 살인행위⁶⁾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 난다. 안락사는 “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이다. 그것이 “아무리 선의에서 빚어진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 (2277)

(4) 지나친 치료의 거부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정은 환자가 하고, 환자가 자격과 능력이 없을 경우에 법적 보호자가 환자의 소원과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278)

(5) 진통제 사용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죽어 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도 있다. 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야 한다.” (2279)

2. ‘안락사’ 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의 교리 설명⁷⁾

제5계명 중 ‘무죄한 자의 살해’에서, ”불치의 환자가 오랫동안 혹심한 고통이나 받다가 죽겠으므로 그 고통기간을 단축시킨다하여 안사술(安死術)로써 그의 생명을 직접 단축시키지 못하며, 또 당자가 이렇게 하여주기를 청할 수도 없 “다. 가톨릭교회는

6)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안락사 외에도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에 대한 협력”,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직접적인 낙태뿐 아니라 그에 대한 협력”, “자살과 그에 대한 의도적 협력” 등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요약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https://www.cbck.or.kr/Documents/Other/401744?category=K5205&gb=title>

7) 尹亨重, 『詳解天主教要理(中) 지킬 誠命篇』, (京鄉新聞社, 1958), 122쪽.

아직 안락사라는 표현이 없었을 때도 ‘안사술’이라는 표현을 구사하여 이를 살인죄로 여겼던 것이다.

IV. 안락사를 지지하는 운동의 출발점

이 글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압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⁸⁾ 안락사를 둘러싼 가톨릭 관계자들의 수많은 개별적인 이론을 소개하지 않는다.

1. 생각과 삶의 세속화

(1) 생각의 세속화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상은 어떻게 일반화되는가? 인간의 생각과 삶이 세속화되다 보면 죽음의 의미와 고통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세속화에는 세 단계가 있다. 먼저 ①상대적인 자율성과 현세적 실재들의 가치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표명한다. 이어서 ②현세적 실재들에게만 배타적인 관심을 갖는다. 나아가 ③신과 도덕률에 대한 의존을 모두 거부한다. ②와 ③은 고통과 죽음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데 무능함을 드러내는 단계이다.

(2) 사상의 세속화

죽음이란 인간에게서 지상의 재화들을 버리면서도 보다 충만한 생명을 향한 희망에 개방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죽음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현상은 서로 연관된 다음 두 가지 태도로 이어진다.

첫째, 죽음을 무시하고 의식과 문화와 삶에서 죽음을 제외시키며, 무엇보다 일상의 실존이 지닌 가치를 참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죽음을 배제한다.

둘째, 죽음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그것을 앞당긴다.⁹⁾

신앙인에게 죽음이란 자신이 하느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알려 주며, 죽음은 하느님의 손에 생명을 맡기는 전적인 순종의 행위다. 반면에 안락사 및 그와 유사한 자살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명 및 죽음을 완전히 제멋대로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표지다. 또한 세속화는 산업시대의 생산주의적 공리주의와 그에 따른 쾌락주의적 윤리에 힘입어 더욱 강화됨으로써, 죽음과 고통은 가장 성가신 것이 된다. 이런 문화에서 무엇보다 경시되고 거부당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통증이다.

고통과 통증의 도피처인 안락사는 이제 정신(합리주의적, 인도주의적 과학주의)으로 들어오고 다음에는 사회와 법 안으로 들어온다.

8) 엘리오 스그레챠(정재우 옮김), 『생명윤리의 이해2』,(2016, 가톨릭출판사), 843-966쪽(제8장 안락사, 죽음의 존엄성과 생명윤리). 원저는 Elio Sgreccia, *Manuale di bioetica*(2007, Vita e Pensiero - Largo A. Gemelli, 1 - 20123 Milano). 스그레챠(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2』에서 재인용. 이하 이태리 문헌은 모두 이 책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9) P.Aries, *L'uomo e la morte dal Medioevo ad oggi*, Bari, 1979.

2. 합리주의적, 인도주의적 과학주의

(1) 과학주의

과학주의 사상은 오직 실험과학 분야에서만 객관적 지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 지식은 과학주의가 주관적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지식과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주의의 대표자가 신화나 상상의 영역이라고 분류하는 윤리적 가치도 배제된다. '우연'과 '필연'에 따라 생성된 세계 안에서 우연히 발생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자기 존재 이외에 다른 기준을 갖지 않는다. '과학적'이성이 인간의 유일한 인도자이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마침내 그가 우주의 광대한 무관심 속에 홀로 내버려져 있음을, 그가 이 우주 속에서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¹⁰⁾

(2) 안락사 촉구 성명서

자크 모노(Jacques Monod) 등 노벨상 수상자 3명을 포함 40여명이 가담한 「안락사에 관한 성명서(Plea for a Beneficent Euthanasia)」는 안락사 지지 이념에 길을 열어주었다.¹¹⁾

"우리는 타인의 불필요한 고통을 관용하거나 수용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는다. 이것은 합리적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정중한 대우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불치병에 걸려 마지막 단계에 이른 환자들에게 쉽고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을 유발하고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수혜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럴 때에만, 그것은 자선적 안락사이다. (중간 생략) 우리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주장에 대한 검토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무감각한 도덕과 법적 제한들에 대해 개탄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금기를 극복하고 임종 때 당하는 무익한 고통에 대해 동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양식 있는 여론에 호소한다." "모든 개인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개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다."

이 성명은 한편으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도덕과 법을 잔인하다고 비난한다.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앞당겨 죽이는 행위인 안락사에 관한 법의 '윤리적 필요성'을 호소한다. "죽을 권리(right to die)"를 들어 "죽일 권리(right to kill)"를 정당화한다.¹²⁾

이 성명은 물질주의적 무신론이라는 기초 위에서 과학으로 하여금 죽음을 '사건'(occurrence)에서 미리 계획하고 계산한 결과(outcome)로 변형시키라고 요구한다. 여기에는 신에 대한 믿음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다. 형이상학과 인격에 대한

10) 자크 모노(조현수 역), 『우연과 필연』, (궁리출판, 2010), 257쪽.

11) 1974년 7월 잡지(The Humanist)에 게재되었다.

12) Benedikt XVI. - Das Lexikon.167ff. 박은호, 「삶의 끝에서 만나는 희망: 생의 말기와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사목정보(2021, 1-2), 59쪽.

존재론이 사라진 것이다. 인격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사라지고 내재성과 주관주의의 철학이 우세하면, 인간의 죽음이 지닌 초월적 가치는 상처를 입는다. 그러다보면 안락사, 자살, 폭력 등이 논리적으로 따라온다. “인도주의는 주관성의 형이상학이다.” 다시 말해 “철학, 윤리학, 예술, 정치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나'이다.”¹³⁾ 이처럼 인간이 인격의 초월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어떤 사물로 느끼게 될 뿐이다.

3. 의학 기술의 발달과 의료의 사회화

(1) 의료 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은 안락사를 첨예한 문제로 만들었고, 이를바 ‘존엄한 죽음’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1975년의 카렌 앤 퀸란(Karen Ann Quinlan) 사건에서 촉발된 논란은 우리에게 의학의 발달에 따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혼수상태와 회복 가능한 혼수상태의 경계를 정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환자를 소생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은 많은 환자들이 의식을 회복하게 해 주면서, 어떤 환자들에게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고통을 연장시켰다.¹⁴⁾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기술적 노력은 환자를 소외와 고독 속에 남게 한다. 임종의 순간에도 환자를 가족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를 다루기에 바쁜 의료진에게서도 멀어져 홀로 남겨지는 일이 많다. 특정한 소생술을 어떤 정도까지 사용하는 게 정당하고 의무적인가 하는 윤리적 물음과 함께, 임종자들에게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할 윤리적 의무도 생각하게 한다.¹⁵⁾

(2) 의료의 사회화

여기에 ‘의료의 사회화’ 문제가 추가된다. 의료 복지의 발달로 건강을 원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밀려든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의 비인격화를 초래하여 임종자는 병동 안에 소외되어 버린다. 사람다운 간호를 어렵게 만든다.¹⁶⁾

V. 교회 교도권¹⁷⁾의 가르침

1. 안락사 교리의 발달 과정

13) F.D'Agostino, "Eutanasia, diritto e ideologia", *Iustitia*, 1977, p.301.

14) Segret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Francese, "Problème éthiques posés aujourd'hui par la mort et le mourir", *Bulletin du Secrétariat de la Conférence Episcopale Française*, (marzo, 1976), p.6.

15) A. Pessina (a cura di), *Scelte di confine in medicina, Sugli orientamenti dei medici rianimatori*, Milano, 2004.

16) L. Villa, *Medicina oggi. Aspetti di ordine scientifico, filosofico, etico-sociale*, Piccin Editore, Padova, 1980.

17) 교도권(教導權, Magisterium)이란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와 사도들의 전승(=성전)을 구원에 필요한 교리로 가르치는 권한을 말한다.

(1) 시간의 흐름과 교리의 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념들이 점진적으로 뚜렷하게 정의되고 구별된다. 본래 의미의 안락사에 관한 정의, 간접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통증조절요법의 개념, '예외적 혹은 불균형적 치료 수단의 개념, 치료 집착 혹은 나쁜 죽음(dysthanasia)의 거부 등이 나타난다.

(2) 안락사에 관한 교리의 폭

이와 더불어 안락사를 다룬 가르침의 폭이 점차 넓어진다. 즉, 생명을 거스르는 문화적 태도나 다른 형태들과의 연관성을 밝히며, 임종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예방적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담당해야 할 의무를 더욱 정확히 표명한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교회는 의학의 발달과 사회적 풍습의 진화 과정을 주시하였다.

2. 인격주의 생명윤리

(1)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회의 가르침의 출발점은 피조물로서 인격의 존엄, 인간 생명의 신성함,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함, 따라서 무고한 생명을 존중해야 할 권력자의 의무 등이다¹⁸⁾. 이러한 입장은 '인격주의 생명윤리'라 한다. 모든 인격이 시간과 사멸(死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의 세속적 지평을 극복하고 인격이 지닌 초월적 객관적 가치와 영원한 운명을 인정한다.

(2)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회가 안락사 관련 발언을 시작하게 된 것은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¹⁹⁾ 「그리스도의 신비체(Mystici Corporis)」(1943.6.29.)부터였다. 1939년부터 시작된 나치 정권의 만행에 대하여 "신체 기형이나 정신 질환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사회의 성가신 짐처럼 간주하여 때때로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바라보며 우리는 깊이 탄식합니다." "구세주께서 가장 아끼셔서 그분의 측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 불행한 이들이 흘린 피가 '땅바닥에서 하느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창세4,10) ²⁰⁾ 이후 의사 단체들의 요청 등에 따라 교황은 직접 또는 교황청 조직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²¹⁾.

3.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교리의 종합

(1) 대표적인 두 문헌

18) T. Iorio, *Theologia moralis*, II, Napoli, 1939, p.143.

19) 회칙(回勅, *Encyclica*)은 교황이 교회 전체에 관계 있는 문제에 관하여 전 세계의 주교에게 보내는 교서(敎書)를 말한다.

20) 교황 비오12세,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Mystici Corporis)」 제94항.

21) 자세히는 스그레챠(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2』, 865쪽 이하.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안락사에 관한 문헌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 문헌을 든다면 「안락사에 관한 선언(Iura et bona)²²⁾」(1980.5.5.,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5년)²³⁾이라 할 수 있다.

(2) 본래적 의미의 안락사 거부

신학자나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에 관한 개념 정리에서 시작한다. 즉,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라는 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전에 교황 비오 12세는 간접적 안락사라는 말로 ‘통증조절요법’을 가리켰고, 특정한 조건에서는 그것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실 이 경우는 행위 자체에서나 그 의도에서 생명을 억압하거나 죽음을 앞당기려는 것이 아니라 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문헌에서 뒤에 나오는 ‘진통제 사용’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의학 용어에 자주 등장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라는 구분도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소극적’이란 형용사는 어떤 치료나 의료적 개입을 생략함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극적’이란 말은 훨씬 넓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안락사는 어떤 의미에서 언제나 소극적인 것이며, 그것을 실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위를 통해서든 부작위를 통해서든 언제나 적극적인 것이다.

(3) 신앙교리성의 판단

이러한 개념 정리 아래 내려진 안락사에 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도덕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이제, 태아이든 배아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 환자이든 임종자이든,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허가할 수 없음을 확고히 강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자신의 보호에 맡겨진 사람을 위해서든 이런 살인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런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어떤 공권력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부과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하느님 법에 대한 위반이자 인격이 지닌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며,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이고 인간성에 대한 침해이다.”²⁴⁾

회칙 「생명의 복음」의 어조는 보다 단호하고 강하다.

“안락사는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한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고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살해이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회 전승이 이 교리를 전해 주고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이 이것을 가르친다.”²⁵⁾

22) 선언(Declaratio)이란 교회에서 기존 법을 보충 또는 새로 설명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19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4)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제2항.

2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제65항.

이 단죄는 동일한 문헌에서 자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안락사에 관한 선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자발적 죽음, 즉 자살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용인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편에서 하느님의 주권과 사랑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알려진 것처럼, 때때로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심지어 면제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자살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거부이고, 본성적인 생존 본능에 대한 부정이며, 이웃과 여러 공동체와 전체 사회에 대한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 또는 형제에 대한 봉사 등 보다 높은 원인에 의해 자신을 봉헌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위험 앞에 내놓는 희생은 자살과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²⁶⁾

(4) 안락사는 살인과 같은 악행

한편, 회칙 「생명의 복음」은 안락사를 자살이나 살인과 다름없는 악행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선언한다.

"자살은 언제나 살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자살 의도에 동조하고 이른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통해 그것을 실행하도록 돕는 것은, 비록 요청을 받았을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불의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며, 때로는 주된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²⁷⁾

이 회칙은 안락사를 그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동정심에서 행하는 안락사의 경우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존을 짚어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거부가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안락사는 그릇된 자비, 아니 자비의 염려스런 왜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참된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지,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²⁸⁾

'2단계'는 이른바 '비자발적 안락사'로서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행하는 안락사이다.²⁹⁾

"어떤 식으로도 안락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타인이 살해하는 형태가 될 때, 안락사의 선택은 더욱 심각해집니다."³⁰⁾

마지막으로 '3단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다.

"의사나 입법자 등 몇몇 사람들이 누구는 살아야 하고 누구는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차지하려 할 때, 그 남용과 불의는 절정에 이릅니다."³¹⁾

(5) 안락사 주장과 합법화

지금까지 수많은 안락사 주장이 있었고, 세속국가에서는 "안락사에 점점 더 문을

26)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제1항.

2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제66항.

2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제66항.

2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제66항.

3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제66항.

3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제66항.

열고 성문을 열었다.”³²⁾ ‘죽음의 문화’의 확산으로 안락사가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을 다스리는 해 결책인양 여겨졌고 안락사에 관한 수많은 법률적 정당화가 이루어졌다.³³⁾

(6) 왜 안락사를 거부하는가?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 신앙교리성의 ‘안락사에 관한 선언’이 안락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밝힌 바를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이 문헌이 제시하는 내용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희망을 두는 사람들을 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로마 14,8; 펠립 1,20 참조)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당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특히 죽음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 그들이 이 믿음을 공유한다면 -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존엄성을 부여해 주고 그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인정할 것이다.”³⁴⁾

(7) 선의의 사람들에 대한 호소

이 문헌은 계속해서 선의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한다.

“철학적 혹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권리에 대한 생생한 의식을 지닌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이 선언에 동의할 것을 희망한다. ... 여기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기 때문에, 그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 정치적 다원주의나 종교의 자유에서 도출된 논증에 의지할 수는 없음을 분명하다.”³⁵⁾

이 본문은 인간 생명 수호 및 안락사 거부에 관하여 합리적, 비종교적, 보편적 근거에 호소하고 있다. 마치 환자와 임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신앙인들만의 의무인 것처럼 단지 신앙적 이유에만 근거해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전략적 이유이기 이전에 진리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도 피해야 할 일이다. 생명이란 종교와 관계없이 올바른 이성과 객관적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이며 세속적 선(善)이기도 하다.³⁶⁾

(8) ‘생명권’은 인권의 유품

교황 비오 12세는 생명권(生命權)을 ‘자연권(自然權)’이라고 불렀다. 1980년 신앙교리성의 「안락사에 관한 선언」에서는 생명권을 인간의 ‘기본권(基本權)’, 즉 모든 인권 중에서 첫째가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것이 기본권인 이유는 그 기초 위에 다른 모든 인권들이 기초하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은 모든 선(善)의 근본이고, 모든 인간 활동과 모든 사회적 공존의 원천이며 필요조건이다.”³⁷⁾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은 그리스도교인들 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 의해 옹호되어야” 한다.³⁸⁾ 생명보호는 각자

32) Benedikt XVI. - Das Lexikon.167ff.

33) 자세히는 스그레챠(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2』, 877쪽 이하.

34)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서문.

35)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서문.

36) 스그레챠(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2』, 879쪽.

37)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제1항.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최고의 권리인 생명권을 ‘행복추구권’이니 ‘자기결정권’이니 하는 구실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윤리의 기초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존중하는 것, 인격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다. 윤리에서 이것과 다른 참된 기초란 나올 수 없다. 윤리는 인간을 ‘존재’에서 ‘당위’로 인도한다. 이것과 다른 기준이란 누군가가 타인을 손상시키며 얻는 유용성, 점점 더 확장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욱 압제적이 되는 소수의 지배 권력 등에서 나올 것이다.

탄생의 순간에 인격에 대한 진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과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임종의 시기에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 인간이 창조주께로 되돌아감을 존중한다는 뜻이며, 죽음을 앞당기는 권리(안락사)이나 일종의 생물학적 횡포를 사용해 이 만남을 가로막는 권리(치료 집착을 거부하는 등 인간이 행사하려는 다른 모든 권리)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안락사’와 ‘존엄한 죽음’ 사이의 경계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온다.³⁹⁾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권리와 윤리 자체, 그리고 의료직의 정체성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모두 무너뜨림을 의미한다.⁴⁰⁾ 이제 앞으로 다를 원칙들은 바로 ‘존엄한 죽음’이라는 기준을 더욱 명료하게 보여줄 것이다.

(9) 치료 수단의 균형적 사용

도덕은 죽음을 인간과 신앙인의 존엄성에 어울리게 할 의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존엄한 죽음’이란 표현은 안락사를 속에 감추고 있지 않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마땅한 지향점을 나타내 준다. 사실 많은 사람이 평온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문헌이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종종 극심하고 오랜 고통이 선행되거나 동반된 죽음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에 깊은 번뇌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오늘날 남용될 위험이 있는 기술주의에 맞서 죽음의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개념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죽음을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할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온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⁴¹⁾

그래서 「안락사에 관한 선언」은 의학의 발달에 맞추어 일부 신학자들이 이미 사용하던 새로운 표현과 용어를 도입한다. 교황 비오 12세 이후로 ‘통상적’, ‘예외적’ 치료 수단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임종자를 돌보기 위해 통상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지만, 예외적 수단의 경우 환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런 포기가 죽음을 앞당길 때에도 정당하다는 지침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예외적’이란 그 수단이 고통의 증가를 유발할지 혹은 그런 수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정의된다. 하지만 의료가

38) Benedikt XVI. - Das Lexikon.167ff.

39) 스그레챠(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2』, 880쪽.

40) F.D'Agostino, “Eutanasia, diritto e ideologia”.

41)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제3-4항.

발달하면서 이런 구분이 어려워졌다. 과거에 예외적이라 판단되던 많은 수단이 오늘날에는 통상적인 것이 되었고, 저명한 임상의들이 말하는 것처럼⁴²⁾ 집중치료 수단을 사용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치료 수단이 아닌, 그 수단이 기대하는 ‘치료적 결과’에 기초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윤리학자들은 예외적 수단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고 대답해 왔다. 그러나 용어의 모호함과 치료법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언제나 유효한 이 대답이 오늘날에는 아마도 덜 명료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균형적’ 수단과 ‘불균형적’ 수단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각각의 경우에 환자의 상태와 그의 신체적, 도덕적 힘을 고려하며, 치료법의 유형,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필요한 비용과 적용 가능성을 기대하는 결과와 비교하여 수단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런 구분으로부터 신앙교리성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매우 유용한 네 가지 지시적 기준을 제시한다.

① 다른 치료법이 없다면, 비록 아직 실험단계에 있고 위험이 없지 않을지라도 가장 진보된 의료에서 개발된 수단을 환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수단을 사용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수단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진정으로 역량을 갖춘 의사의 소견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의 정당한 원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보통의 수단에 만족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미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없지 않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는 유형의 치료법을 사용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부과할 수 없다.

④ 사용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유사한 경우에 환자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정상적 돌봄을 중단하지 않고 불화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만을 초래할 치료를 포기하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정당하다.”⁴⁴⁾

(10) 정상적 돌봄 및 완화적 돌봄

이제 치료의 관점에서 질병의 억제나 치유의 목적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 온다. 본래 의미의 치료행위는 모두 불균형적인 것이 될 위험이 있다. 그래도 의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이제는 치유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존중하고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를 가능한 한도에서 실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적 돌봄’과 ‘완화적 돌봄’의 문제이다.

정상적 돌봄은 영양수분 공급(인공적이든 아니든, 기관지 분비물 제거, 욕창관리 등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 의료인 현장」은 이렇게 말한다.

“영양공급과 수분공급은, 인공적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도,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임종자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기본적인 돌봄에 속한다.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중단한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 행위를 의미할 수

42) C. Manini, “Considerazioni mediche sull'eutanasia”, in Aa. Vv., *Morire si, ma quando?*, pp.103-120.

43)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제4항.

44)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제4항. 신앙교리성의 ‘안락사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80년 5월이다. 그 후 의학기술의 발달은 안락사 문제에 대한 보다 정교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에 관하여는 2007년 문헌이기는 하나 스그레챠(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2』, 883-887쪽 참고.

있다.”⁴⁵⁾

한편 '완화적 돌봄'(palliative care)은 정상적 돌봄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질병의 증상을 조절하고 무엇보다 통증(통증만은 아니지만)을 완화시키는 것 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진통제 사용이라는 문제가 따른다.

완화적 돌봄에 대해 회칙 「생명의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현대 의료에서는 이른바 ‘완화적 돌봄’이 특별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의 말기에 고통을 더 견딜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인간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⁴⁶⁾

오늘날 심리와 영적 차원에서 중환자와 임종에 임박한 이들을 수발하는 일은 의료제도의 구조적 개혁에 속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⁴⁷⁾ 영어권 지역에서 탄생한 호스피스(hospice) 제도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심리학자, 사목자, 자원봉사자 등이 가정에서 가족을 지원하며 완화적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간호가 시작되었다.⁴⁸⁾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⁴⁹⁾. 생명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교육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11) 치료 집착과 나쁜 죽음의 거부

안락사에 관한 선언의 마지막 지침에는 이른바 '치료 집착에 대한 거부'가 나온다. 치료 집착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연장하려다 나쁜 죽음이라는 반대편 극단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개념을 정의하려면 무엇보다 '사망 판정 기준⁵⁰⁾'이 있어야 한다. '사망 판단'의 정의 문제를 다룬 각종 국제 현장은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규정한다.⁵¹⁾

(12) 말기 환자에게 진실 알리기

'안락사에 관한 선언' 등에서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언급할 때마다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런 동의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동의의 당사자인 환자가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⁵²⁾

요컨대 의료기술의 발달이 눈부시고 안락사 정당화를 위한 합리화 논리가 보다 교묘해짐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포함, 안락사 문제를 생명 존중의 맥락, 의사-환자 관계의 맥락, 질병

45)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새 의료인 현장」(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제152항.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776>

4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제65항.

47) 교황 베네딕토16세 2007년 9월 7일 비엔나 호프부르크 강론.

48) N. Cellini, "Problemi etici dell'assistenza al morente", in E. Sgreccia (a cura di), Corso di bioetica, Milano, 1986, pp.153-163.

49) 이영숙 수녀,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마뗄암 재단, 2019)과 유성이,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멘토프레스, 2023)는 이에 관한 생생한 증언이다.

50) 예를 들어 「제네바 현장」(1968)은 ① 상호작용의 표지 부재, 자발호흡 부재, ③ 근육 이완 및 반사 작용 부재, ④ 약물로 유지되지 않는 혈압강하, ⑤ 뇌전도(EEG) 상 뇌파 부재 등의 표지가 동시에 관찰되면 '사망 상태에 있다고' 정의한다.

51) 자세한 것은 스그레자(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2』, 890쪽 이하.

52) 이 문제를 보다 명시적으로 다룬 문헌으로는 프랑스 주교회의 사무국의 문헌과 독일 주교회의 선언문](1978.11.20)이 있다.

상황의 맥락, 그리고 합리적 치료의 맥락에서 다루는 최근의 연구⁵³⁾도 이러한 노력의 표현이다.

VI.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최신 성명

서두에 언급한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에 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2022년 6월 29일)의 각 문단의 첫 두 문장씩 소개하기로 한다.

1. 생명 파괴는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의 부정

“자살이든 타살이든 목숨을 끊는 행위는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이 파괴의 행위는 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그의 존재 의미와 가치마저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됩니다.”

2. 인간 생명은 변함없는 보편적 가치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기에는 질병과 고통의 삶은 무의미하며, 인간 생명이 지닌 가치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건강 내지 쾌락만으로 판단하는 현대 사회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 조력 자살은 의료와 의료인의 모습 왜곡

“이른바 ‘의사 조력 자살’에는 환자가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의사의 개입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끊도록 돋는 것은 ‘생명의 봉사자’라는 의사의 고귀한 본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4.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교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균형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는 양심 안에서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생명의 복음」, 65항 참조). 그러나 말기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 행위들, 곧 수분 공급, 영양 공급, 일상적인 투약 등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5. 죽음은 공동체가 함께 겪는 사건

53) 정재우,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가톨릭철학 제21호 (2013), 5쪽 이하.

“한 사람이 임종하는 과정은 결코 사사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생의 말기 돌봄, 마지막 인사와 애도, 시신의 수습과 안장, 사망에 대한 법적 처리, 사별 가족에 대한 돌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임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6. 인간의 생명 앞에 중립 없다.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에 필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경청과 돌봄이지, 죽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른바 ‘의사 조력 자살’은 언뜻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심한 살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VII. 맷음말에 갈음하여 - 가톨릭교회 주장의 호소력

1. 가톨릭 신앙은 생명 보호의 최후 보루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대응을 보면 가톨릭교회야 말로 생명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⁴⁾. 가톨릭교회의 대응방식이 다른 종교의 그것과 다른 것은 가톨릭교회는 신앙의 진리라는 절대적/불변적/객관적 계시 진리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을 ‘가치의 단계’에 따라 설명한다는 것이다. 뭔가 타당하다면, 그것은 왜 타당하며, 그 타당성의 근거는 또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그 근거는 무엇인가? 가톨릭교회만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모순 없는 답을 줄 수 있다. 가톨릭교회야말로 진리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유한한 생명’을 통하여 ‘무한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적인 방식으로 설립하신 유일한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2. 가톨릭교회에 대한 무지와 오해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저조하고 부정확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기는 풍토도 있는 것 같다. 특히 가톨릭에 관한 한 어떤 이들은 그것이 2천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의 정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박해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면서 12억 신자를 품고 있는 가톨릭교회는 말하자면 오래된 것이면서도 늘 새로운 것임을 모르고 있다. 개신교를 신교(新敎)라 하고 가톨릭교회를 멋대로 구교(舊敎)라 부르는 한국은 “새것은 좋다”는 선입견에 지배되어 가톨릭이 그리스도교임을

54) <http://www.forlife.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양한 생명윤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자료 (<https://cbck.or.kr/Committees/201005670/>)도 참조.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시대에 뒤진 역사적 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조차 있다.

그렇게 되니 가톨릭이 세계의 종교계는 물론이요, 정치, 경제, 사회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리가 없다. 가톨릭이 학문과 예술의 각 분야에 걸쳐 2천년간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 왔는가를 알 까닭이 없다. 가톨릭을 떠나서는 인류의 역사 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톨릭은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임을 알 리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가톨릭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부분적이고 상호모순적인 경우가 많지 않나 싶다. 그들은 가톨릭 성직자 의 독신 생활을 보고 가톨릭은 인간성을 무시한다고, 인간을 영혼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가톨릭교회의 어떤 면을 보고 교회는 그리 스도교 신앙을 부폐시키고 영혼의 종교를 무시하며 세속적이라고도 한다. 코페르니쿠스 이야기를 들어 가톨릭은 진리를 멀리하고 과학을 무시한다고 하며, 성당이나 신자들 가 정에 예수 십자고상(十字苦像)이나 성모상같은 성상(聖像)을 모시고 기도하는 것을 우 상승배라 한다.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과 직거래’ 하면 될 일을 공연히 먼 걸음한다고 한다. 신자들의 기도 모임은 신자들이 무지하고 우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수도 생활을 보고 가톨릭은 너무나 현대 생활을 무시 한다고 하는가 하면,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 활동을 신자의 본분을 망각한 야망의 소치 라고도 하고, 로마 교황청의 존재나 활동을 놓고 가톨릭은 현세적 지배자가 되려 한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모순은 실은 표면적인 것이며, 보다 깊은 인식에 의해 해소될 성질의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국은 죽음의 연장에 지나지 않음녀 서도 사람을 현혹시키는 허위에 찬 현란한 문화(pompa)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진면목을 이해시키는 것이 갈수록 힘든 것으로 보인다.

3. 가톨릭교회 내부로부터의 봉고

여기에 가톨릭교회의 현실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톨릭의 안락사 반대, 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안 반대는 진리인 교리에서 출발한 정교한 논거와 결론에 도 불구하고 인류에 대한 호소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은 것 같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안락사/낙태/동성혼/차별금지법과 같은 죽음의 문화에 항거하는 목소리가 일사불란한 가톨릭교회보다도 셀 수 없는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있는 개신교쪽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기조차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만 보더라도 가톨릭 신자 약 590만명 중 주일 미사를 꼬박꼬박 참예하는 신자들은 2021년 통계로 평균 8.8% 정도, 92% 이상이 냉담중이다⁵⁵⁾. 젊은이의 경우는 냉담율이 더욱 높다⁵⁶⁾. 이러한 상황의 종

55)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912>

56) 1960년대 초반에는 한국 가톨릭신자 40만명 이하였으나 90퍼센트에 육박하는 35만명 이상의 신자 들이 매주일 미사에 참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96년만 해도 신자수 약 356만명 가운데 주일미사

교라면 앞날은 어둡다⁵⁷⁾.

가톨릭교회에서는 지난 60년 이상 '공의회의 정신'이네, '개방, 쇄신, 개혁' 이네 뭐네 하며, 교리, 미사 전례, 신학교, 사제직, 수도생활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흐트러져, 천상의 성인들이 보기에는 한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가톨릭교회의 교의(敎義, Dogma)를 건드리지 않은 위대한 사목적 공의회(司牧的 公議會, Pastoral Council)로서, 어떻게 하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나타낼 것인가를 다룬 전략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의 가톨릭교회의 변모는 가톨릭이 가야 할 길의 진전을 나타냈다기 보다는, 마치 '본질의 변화' 같은 양상을 보여왔다⁵⁸⁾. 현실 생활에서 가톨릭 구성원(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의 천상생활에 대한 긴장감은 박약해졌다. 생명윤리에 충실하여 낙태 반대, 동성혼 반대, 안락사 반대를 목청껏 외치고 그 덕분에 낙태를 면하고 태어난 생명도 많다. 가톨릭 생명운동에 감명받아 생명보호에 무심하던 사람들이 생명 보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죽음의 문화에 앞장선 의료인들이 낙태 반대/안락사 반대쪽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가톨릭교회는 이처럼 거듭난 영혼들이 올바른 믿음 속에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교회의 목적인 '영혼 구원(=천당에 가도록 인도)'에 얼마나 충실한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마태오 7,20)지 않았던가? 외화내빈이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호소력'이 별로다.

교회의 삶은 '실존 차원의 체험'을 전제로 한다. 교회에는 현재와 미래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인들의 삶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자들의 삶을 통해 설명될(=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⁵⁹⁾. 그래야만 신자들은 어지러운 세상 서로 면려하며 자기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고, 갈라진 형제들은 '개종'을 결심할 수 있고, 외교인들은 신앙의 길에 들어설 용기를 갖게 된다. '거룩함'을 지향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가톨릭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날로 달로 추락할 것이다. 또한 신학자들이 현대 학문의 오류를 지적하기보다는 현대 학문의 영향에 휩쓸린다. 신학자들이 초자연적인 진리를 자기들이 점차 못 믿겠다 보니, 아예 믿는 사람까지 못믿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교'를 우습게 알고, 누구나 자기 종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외적인 길이 아니라 정상적인 길로 가르치며, 개종하려는 사람들을 말렸다고 자랑하는 성직자조차 있다. 이러한 현대 신학은 생명보호에 관한 정교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락사 반대' '낙태 반대'를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없다. 어느 틈엔가 피임허용, 낙태 허용, 안락사 허용, 동성애 허용, 포르노 허용과 같은 '죽음의 문화'가 신학자들, 수도자들, 고위 성직자들 입에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선종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추기경 시절의 말씀, "신학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가 떠오른다.

참여자수는 평균 108만명으로 30% 정도로 그나마 나았었다.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73899>.

57) 가톨릭교회의 하락 현상에 대하여는 교황 베네딕토 16세(페터 제발트와의 대담)(정종휴 옮김), 『하느님과 세상』, (성 바오로, 2004) 561쪽 (옮긴이 뒷글: 봉괴일로의 교회를 생각하며) 이하.

58) 요셉 라칭거(교황 베네딕토16세)(정종휴 옮김), 『그래도 로마가 중요하다 - 신앙의 현재 상황』(바오로딸, 1994) 참조. 책 전체에 걸쳐 그 동안 '공의회의 정신'의 이름으로 가톨릭교회가 얼마나 황폐화 되었는지 설명이 자세하다. 원저가 발행된 1984년 이후 지난 38년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59) 교황 베네딕토 16세(페터 제발트와의 대담)(정종휴 옮김), 『세상의 빛』, (가톨릭출판사, 2012) 105쪽 참조.

4. 개신교 형제들과의 협력과 연대

필자는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밖에 없으나, 진정으로 가톨릭교회의 현상을 우려하고, 이점을 한국의 성직자들, 고명한 신학자들, 철학자들, 수도자들과 밤새워 논쟁하고 싶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2) 뭐가 두려운가. 필자가 의지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신앙의 유산(Depositorum Fidei),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교회가 지난 2천년 동안 배출한 수많은 천상 성인들의 영웅적인 삶이다. 죽음의 문화가 갈수록 극성인 오늘날, 천상의 성인들이 살아 계신다면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뭐라고 하실 것인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루카 18:8).

다행히도 안락사에 관한 개신교의 입장도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매우 가깝다.⁶⁰⁾ 그리스도교인은 한편으로는 자연보호, 환경보호, 생태계 존중 등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생명의 손쉬운 폐기를 정당화하는 죽음의 문화에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락사’를 실효성있게 반대하고, 나아가 21세기 참된 생명의 문화를 꽂을 피우려면 그리스도교 신앙과 선의에 충만한 가톨릭과 개신교 형제들의 기도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주제어: 안락사(Euthanasia),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그리스도의 신비체(Mystical Body of Christ), 안락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Euthanasia), 생명의 복음(IEvangelium Vitae), 으뜸 인권으로서의 생명권(Right to Life as Primary Human Rights), 자연권(Natural Rights), 완화적 돌봄(Palliative Care), 호스피스(Hospice)

투고일자 2023. 02. 07. 심사개시일자 2023. 02. 13. 게재확정일자 2023. 02. 21.

60) 스그레챠(정재우 옮김), 『생명윤리의 이해2』, 871쪽.

■ 참고문헌

『가톨릭교회교리서』(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가톨릭교회교리서(요약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천주교 요리문답』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새 의료인 현장」(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Iura et bona)」(1980.5.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9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페터 제발트와의 대담)(정종휴 옮김), 『하느님과 세상』, (성 바오로, 2004)

요셉 라침거(교황 베네딕토16세)(정종휴 옮김), 『그래도 로마가 중요하다 - 신앙의 현재 상황』(바오로딸, 1994)

교황 베네딕토 16세(페터 제발트와의 대담)(정종휴 옮김), 『세상의 빛』, (가톨릭출판사, 2012)

박도식, 『천주교와 개신교』(가톨릭출판사, 2005)

박은호, 「삶의 끝에서 만나는 희망: 생의 말기와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사목정보(2021, 1-2)

엘리오 스그레챠(정재우 옮김), 『생명윤리의 이해2』, (2016, 가톨릭출판사)

尹亨重, 『詳解天主教要理(中) 지킬 誠命篇』, (京鄉新聞社, 1958),

이영숙 수녀,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마멜암 재단, 2019)

자크 모노(조현수 역), 『우연과 필연』, (궁리출판, 2010)

J. 음파르트(정종휴 옮김), 『가톨릭과 개신교 - 같은 점 · 다른 점, 서로의 이해를 찾아서』, (바오로딸, 1990)

정재우,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가톨릭철학 제21호(2013),

F.D' Agostino, "Eutanasia, diritto e ideologia" ,

C. Manni, "Considerazioni meidche sull' eutanasia" , in As. Vv., Morire sì, ma quando?,

P.Aries, L'uomo e la morte dal Medioevo ad oggi, Bari, 1979.

N. Cellini, "Problemi etici dell' assistenza al morente" , in E. Sgreccia (a cura di), Corso di bioetica, Milano, 1986,

A. Pessina (a cura di), Scelte di confine in medicina, Sugli orientamenti dei medici rianimatori, Milano, 2004.

Segret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Francese, "Problème éthiques posés

aujourd' hui par la mort et le mourir" , Bulletin du Secrétariat de la Conférence Episcopale Française, (marzo, 1976),
Elio Sgreccia, Mauale di bioetica(2007, Vita e Pensiero - Largo A. Gemelli, 1 - 20123 Milano).
Stefan v. Kempis, Benedikt XVI. - Das Lexikon. Von Ablass bis Zölibat (2007, benno)

■ 초록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가톨릭교회는 ‘유한한 생명’이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방법으로 세우신 조직이다. 가톨릭 교리는 ‘생명에 대한 분명한 긍정’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긍정’이다(Benedict XVI). 가톨릭교회는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반대한다. 인간 생명은 신성하고, 안락사는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환자에 대한 ‘지나친 치료를 거부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진통제 사용이 장려된다.

가톨릭교회의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교황 비오 13세의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Mystici Corporis, 6.29. 1943)에서부터이다. 그 후 의사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교황은 직접 또는 교황청 조직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교리의 종합은 「안락사에 관한 선언(Iura et bona)」(1980년 5월5일,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5년)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변함은 없으나 발전은 있다. 특히 한편으로는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안락사 정당화를 위한 합리화 논리가 보다 교묘해짐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안락사에 대한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의 문화가 창궐하는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생명 보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가톨릭교회의 대응방식이 다른 종교의 그것과 다른 것은 가톨릭교회는 신앙의 진리라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이고 객관적인 계시 진리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을 ‘가치의 단계’에 따라 설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톨릭의 안락사 반대를 비롯한 죽음의 문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인류에 대한 호소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런가? 그것은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지난 60년 이상 '공의회의 정신'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개혁이 뒤따랐고, 결과적으로 교리, 미사 전례, 신학교, 사제직, 수도생활 등 가톨릭 문화 전체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흐트러졌다. 죽음의 문화에 진정으로 항거하고 생명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내적인 정화, 즉 ‘교리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더불어 ‘신앙의 유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ABSTRACT]

Euthan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tholic faith

Jonghyu Jeong *

The Catholic Church i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Jesus Christ in a divine way so that 'finite life' can obtain 'infinite life'. Catholic doctrine is a 'clear affirmation of life', and that is a 'clear affirmation of Christ' (Benedict XVI). The Catholic Church opposes all forms of euthanasia.¹⁾ Because human life is sacred, and euthanasia is murder. The church rejects over-zealous treatment of patients. In certain cases, the use of painkillers is encouraged.

The Catholic Church's interest in euthanasia stems from Pope Pius XIII's encyclical 'Mystici Corporis' (June 29, 1943). After that, at the request of medical groups, the pope showed various reactions against euthanasia, either directly or in the name of the church organization. A synthesis of ethical doctrines on euthanasia is found in the Declaration on Euthanasia, 'Iura et bona' (May 5, 1980,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and the Encyclical 'Evangelium Vitae' (Pope John Paul II)(1995).

The core doctrine of the Catholic Church cannot be changed, but there has been development. In particular,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on the one hand and the rationalization logic for the justification of euthanasia on the other hand becoming more sophisticated, the Catholic Church's response to euthanasia has no choice but to become more sophisticated.

Today, when the culture of death is rampant, the Catholic Church is the last bastion of life protection. However, voices opposing the culture of death, including Catholic opposition to euthanasia, often seem to have little appeal to humanity. Why? It is because the priests, religious, and laity of the Catholic Church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ver the past 60 years, numerous reforms have been followed under the banner of the "Spirit of the Council", and as a result the almost entire Catholic culture, including doctrine, liturgy, the seminaries, the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 has become more disturbed than ever before in history. In order to truly and effectively resist the culture of death and establish a culture of life, there must be internal purification of the church, that is, restoration of the 'depositum fidei.'

* Professor Emeritu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